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로*

- 코로나19 시대의 공감과 환대

이종원 (계명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바이러스로 인한 차별과 배제

1. 격리 수용
2. 차별과 배제
3. 구조적 차별

III. 혐오 바이러스의 확산

1. 혐오의 표출
2. 혐오를 동반한 폭력
3. 혐오에서 인류애로

IV. 공감과 환대

1. 공공재로서의 바이러스와 면역
2. 공감
3.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4. 환대의 공동체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04>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8일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주저자, jwlee7@kmu.ac.kr

• ABSTRACT •

Form the repugnance To the Empathy and Hospitality: Focus on the
Empathy and Hospitality in the era of the COVID-19

Prof., Lee, Jong-Won (Keimyu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nd repugnance caused by corona-virus critically, and to find which values and spirit that we have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disaster resulted from the COVID-19 is worst for people who located in the most vulnerable place of our society according to gender, class, racial discrimination. We experience the strongest psychological drives that our resentment and anger and hostility strike out to particular group. The sino-phobia reaches its climax, super-spreader criticized openly, and boomer remover, covidiot was on someone's lip wide spread. These hatred virus works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devastate the lives those who are discriminated. The main key is how we can solve this vulnerability of all to virus to make it public issues. To overcome corona-virus, we should make our society the community of sympathy and care through serious self-examination. It is the virtue of empathy and hospitality that we all must have in a era of COVID-19. These virtues resolve conflict with others and purify human relation, and roles lubricating oil that harmonize and make meaningful mutual relationship. Therefore, church community needs to become a servant model that practices love through hospitality at this time of crisis and disaster.

Key words: COVID-19, Empathy, Hospitality, Discrimination, Exclusion
Repugnance, Violence

I. 들어가는 말

WHO는 2018년 사스나 메르스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대유행이 일어날 정도로 위협한 미지의 감염병을 ‘질병X’로 부르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¹⁾ WHO의 예견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였고, 발생한지 1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빠르게 확산되는 와중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의료시스템을 위협했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행된 강력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무기력감 등으로 인해 우울과 좌절까지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

공기 중에는 혼자 떨어져 살 수 없고, 플라스틱 위에서도 며칠간 살아 남지만, 햇빛만 비추면 서서히 소멸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사람들은 ‘교활하고 영악스럽다’는 인격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어떤 이에게는 치

1) 감염병(infectious disease)은 병원체와 숙주 간 면역과 병리적 과정을 거쳐 질병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붙은 이름이다.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작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 뒤,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한다. 반면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은 전파 과정을 거쳐 질병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붙은 이름이다. 즉, 감염된 사람 간의 접촉이나 물, 공기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례로 음식물로 인해 다수가 식중독균에 노출된 후 설사나 구토가 나는 경우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지만, ‘전염병’으로 보지는 않는다. 감염병 중에는 전염이 되지 않거나, 전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위험성도 높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기는 대표적인 ‘전염병’이지만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전염병’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므로, 2010년 보건복지부는 ‘전염병 예방법’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기모란 외, 『멀티플 팬데믹』(서울: 이매진, 2020), 24.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코로나19 데카메론』(서울: 모시는사람들, 2020), 14-15 참고.

명상을 가하고, 어떤 이에게는 너그럽게 지나가는데, 환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무증상 상태로도 확산위험이 큰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냉전 시대의 생존 법칙이 상호확증파멸(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었다면, 코로나19 시대에는 새로운 MAD, 즉 상호확증거리(Mutually Assured Distance)가 지배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자연이 바이러스를 통해 “내가 나에게 했던 짓을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있다”는 교훈을 일깨운다고 하였다.²⁾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비대면, 외로움, 고독, 불편함, 불안, 불확실, 비정상, 건강 관심 증대, 죽음에 대한 고찰 등은 AC(After Corona)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이다.³⁾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 왔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상실한 채 낯설고 생소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 제이슨 쉥커(Jason Schenker)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향후 20년간 드리울 어두운 그림자를 예견하면서, 코로나19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시끄러운 소음(noise)과 같다고 하여, 이를 NOISE 프레임워크라 불렀다.⁴⁾

-
- 2) 슬라보예 지젝, 강우성 옮김, 『팬데믹 패닉』 (서울: 북하우스, 2020), 104, 111.
- 3) 포럼 M은 코로나19가 마이크로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HOLO”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HOLO는 비대면 또는 언택트 환경의 부산물로서 Healthcare, Oversize(대용량 구매 현상 및 사재기), Life at Home(집콕 현상), Online Shopping(온라인 쇼핑)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고환상 외, 『뉴노멀로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세상』, 141-143 참고. 최윤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변동스럽고(Volatile), 불확실하고(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시대로 소개하였다. 최윤식,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서울: 김영사, 2020), 279.
- 4) NOISE는 Necessities(필수품 -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 Occupation(직업 - 일자리, 소명, 취미), Information(정보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System(시스템 -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 External(외부요인 - 국제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의 약자이다. 제이슨 쉥커, 박성현 옮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고양: 미디어숲, 2020), 133-135.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 충격이 지속되면 중산층으로 위기가 진행되는데, 중산층 하단의 일부는 실업과 임금 삭감이 발생하며 저소득층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의 일자리는 5월까지 3,500만 개 이상이 사라졌는데, 이 중 40%가 저소득층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임시 일용직 근로소득이 3.3% 감소하는

장보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상실을 유형적 상실(물건이나 장소에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익숙한 환경 혹은 장소의 상실), 관계적 상실(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함께 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의 상실), 심리적 상실(마음이 괴롭고 나아가 영혼까지 아픈 것), 기능의 상실(병이나 사고 그리고 노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해 왔던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을 상실하는 것), 역할의 상실(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 시스템의 상실(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의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고 마비상태가 되는 것), 영적인 상실(목회자를 비롯한 전문사역자들도 영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등으로 정리하였다.⁵⁾

감염병이 지닌 특징은 ‘예상 불가능한 우발성’이다. 누구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젠더·계급·인종적 불평등 등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바이러스는 공동체의 약한 고리들을 강타하고 취약한 면들을 드러낸다. 코로나19는 ‘우한 폐렴’이라는 호칭부터, 신천지 사태로 인한 대구 경북 지역, 해외입국자, 이태원 클럽까지 바이러스로 인한 원한과 분노, 적개심을 특정 집단으로 돌리려는 강력한 사회심리적 충동을 경험하였다.⁶⁾

데, 앞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200.

- 5) 장보철, 『코로나19 치유 핸드북』 (서울: CLC, 2020), 15-22. 한 장애인 활동가는 비장애인이 코로나를 ‘코로나블루’ 정도로 체감한다면, 장애인과 취약계층은 우울감을 넘어 아무것도 없는 암흑지대라는 의미인 ‘코로나블랙’으로 받아들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수린 외, 『포스트 코로나 사회』 (파주: 글항아리, 2020), 87.
- 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몰락 위기,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직 위기는 계층 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로 인해 국경의 장벽을 높이려는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종주의가 폭력으로 분출할 위험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혐오 바이러스는 차별받는 이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 최근 교회나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인가 교육시설이나 개척교회, 교단이 없는 교회 등 관리·감독이 부실한 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특히 BTJ 열방센터와 IM선교회와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자 ‘기독교 혐오’는 점점 커지면서 종교시설과 연관된 ‘교회 포비아’도 덩달아 확산되고 있다.⁷⁾

요지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을 어떻게 우리 모두의 문제, 즉 공동의 기반이자 공적인 문제로 돌려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더 큰 재앙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지는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

본 소고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발생한 차별과 배제, 혐오 등으로 퍼져나가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정신을 갖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바이러스로 인한 차별과 배제

1. 격리 수용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신병동, 요양원, 신천지 교회, 콜센터 등에서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많은 사망자를 내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

7) “이게 다 교회 때문”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교회 포비아’ 폭발
<https://news.v.daum.net/v/20210206090005784> (검색 2021년 2월 6일)

서도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방역 모범국이었던 싱가포르에서는 총 확진자의 5분의 4가 이주노동자 기숙사에서 발생했으며, 프랑스와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⁸⁾

14세기 유럽에서 페스트가 창궐하자,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포베글리아 섬에 감염자들을 격리시켰다. 이 섬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강제 수용하던 곳이었다. 감염자들이 수용시설에서 죽으면 그 시신을 불구덩이에 던져 소각했다. 그런데 죽은 이의 시신만 태운 것이 아니라 페스트 증세를 보이기만 해도 산채로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 화장시켰다. 이렇게 불태워진 시신과 산 사람들의 수는 16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후 이 섬에는 “온몸이 썩은 귀신들이 나타나 울부짖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면서, 섬사람들은 모두 떠나게 되었다.⁹⁾

미셸 푸코에 따르면, 감금(carceral)은 가부장적 가정, 수도원, 고아원, 구빈원, 자선병원, 감옥, 학교, 군대, 노동자 공동 기숙사 등의 기관에서 훈육과 감시, 처벌로 수용자들의 이동성을 통제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대 사회가 이러한 감금 상태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거대한 ‘감금 체계’를 만들어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금 체계가 만들어 낸 공간으로 급속하게 스며들어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에 입원한 63세 환자였다. 그의 사망과 더불어 청도대남병원의 5층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102명의 환자 전원이 감염되었다.¹⁰⁾ 정신과 환자가 입원하면 환자 수만큼 정액 입원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를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침대를 치우고 온돌방으로 개조하여

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코로나19 테카메론』, 40.

9) 김명자, 『팬데믹과 문명』 (서울: 까치, 2020), 105.

10) 김수린 외, 『포스트 코로나 사회』, 128.

6~8인의 환자를 밀집 수용한 것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되었다.

대남병원 환자들의 집단 발열은 2월 15일 이미 시작되었고 첫 사망자가 나온 것은 2월 19일이었으며, 2월 25일에는 일곱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그때까지도 보건당국은 5층의 환자들을 ‘코호트 격리’하는 방침을 고수하였는데, 이러한 밀집수용 환경은 감염병에 지극히 취약하고 위험한 대처였다. 결국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국가인원위원회 진정과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성명 등이 나오고 나서야 겨우 환자들의 이송 결정이 2월 27일 이루어졌고, 실제 환자 이송이 끝난 것은 3월 5일이었다.¹¹⁾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서는 94명이 집단으로 감염되었으며, 같은 건물의 미주병원에서도 134명이 감염되었고,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77명이 감염되었다. 이러한 격리조치로 인한 집단 감염의 문제점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크루즈선이 2월 3일 요코하마 항에 정박하자 일본 정부는 해외 발 감염병 방역 대책인 원천 차단(미즈기)와 정책에 따라 승무원과 승객을 선내에 머무르게 하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하선 시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3월 1일까지 하선을 미루었다. 이로 인해 크루즈선의 전체 탑승자 3,600명 중 712명(무증상자 300여 명 포함)이 감염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빚었다.¹²⁾

강력한 봉쇄조치나 격리수용은 봉쇄당하는 자들이나 피수용자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안기게 된다. 이는 비단 크루즈선 탑승자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이나 여행객들도 일시적인 봉쇄로 인해 여행경로가 차단되면서 자국의 가족과 친구들과로부터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11) 위의 책, 129-130 참고.

12) 위의 책, 63.

2. 차별과 배제

감염자에 대한 공간적 격리뿐만 아니라 감염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난 또한 문제를 표출하였다. 감염자의 성별과 연령까지 공개되면서 그 가족의 신상까지 알려지면서 비난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되자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반응까지 있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느냐고 비난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일과 후에도 투잡을 뛰어야 하는 고단한 현실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비난하기는 쉽지만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럴 만한 피치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지혜는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도이치(Morton Deutsch)는 정의의 범위가 자신이 소속된 “도덕적 공동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 심리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내부인은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외부인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도덕적 가치, 규칙,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세계에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도덕적 배제가 일어나게 된다.¹³⁾

도덕적 공동체의 경계로 정의의 범위를 구획짓고, 타인을 범주화하게 될 때, 그 경계밖에 있는 이들은 설 자리를 잃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슬라보예 지젝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인류가 만들고 영위해온 시스템의 자기모순이 드러난 정치적 사건으로 보았다. 지젝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이러스라는 자연적, 우발적 존재가 아니라

13)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파주: 창비, 2019), 147.

차별과 배제의 논리로 바이러스의 창궐과 확산을 악화시키는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임을 지적하였다.¹⁴⁾ 바이러스는 구분하지 않고 감염시키지만, 감염의 경로와 정도, 치료에의 접근성에는 우리가 만든 사회적 차별의 경계선을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3. 구조적 차별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계급을 넷으로 구분하고 감염병이 어떻게 계급 간 분리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를 이야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원격 근무 계급(The Remotes),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혹은 감염병 시기이기에 더욱 더 일터를 지켜야 하는 필수 노동 계급(The Essentials), 감염병으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가를 권고받아 준 해직 상태에 놓인 임금 채불 계급(The Unpaid),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혀진 계급(The Forgotten)이 있다. 재택 가능 계급은 자율적으로 이동성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과 웰빙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 계급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노동자들이라는 것이다.¹⁵⁾

독일에서는 매년 30여만 명의 계절노동자가 농업에 투입되며, 이들 중 대다수는 루마니아에서 유입된다. 독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했지만, 봄철 부족한 농가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4만 명의 계절노동자를 들이기로 결정하였다. 4월 말 바이에른 주에서는 하루에만 29명, 브레멘에서는 1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시설이 열악한 난민수용소

14)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190.

1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코로나19 데카메론』, 44-45. 김수린, 『포스트 코로나 사회』, 199 참고.

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랐다.¹⁶⁾

구조적 차별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기에 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이미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차별하는 상황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차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사회 구조에 질서정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불평등한 구조의 일부가 되어 가는 것이다.¹⁷⁾ 가령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모순된 사회 구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똑바로 서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¹⁸⁾ 따라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분간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차별의 경계선을 없애지 않고는 진정한 방역에 성공할 수는 없다. 이러한 차별을 지탱하고 정당화하는 경제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바꾸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과 사회적 차별의 철폐는 당위적 명령이 아니라 엄연한 정치적 과제이다. 콜센터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열악한 노동 현장의 개선과 경제 논리로 이러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구조적 차별의 철폐 없이는 그 누구도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16) 김수린, 『포스트 코로나 사회』, 200.

17)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74 참고.

18) 김은실 외,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서울: 휴머니스트, 2020), 99.

III. 혐오 바이러스의 확산

1. 혐오의 표출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안에 내재된 편견과 혐오가 거침없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인 공포증인 ‘시노포비아’는 극에 달했다. ‘노 차이나’ 포스터가 등장했는가 하면,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면서 중국인과 중국 국적 동포를 혐오하고 배척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년층 사망자가 속출하자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를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고 불렀다. 부머(boomer)는 베이버 붐 세대를 포함한 노년층을 가리킨다. 이는 노년 세대에 대한 내재된 혐오가 극에 달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혐오가 겨냥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나이 든 사람, 약한 사람, 소수자에게 집중된다.¹⁹⁾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부주의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혐오가 표출되었다. 그런데 혐오는 감염자나 접촉자들이 자신들의 증상이나 동선을 숨기는 부작용을 낳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은 혐오와 배제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5월 7일 국민일보가 “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면서부터 촉발되었는데, 성적지향을 밝힌 보도에 연이어 많은 언론이 자극적인 보도를 앞다투어 내놓았다.²⁰⁾ 그러자 ‘게이 클럽’을 감염 진원지로 지목하면서 ‘코로나

19)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 (서울: 메디치, 2020), 129 참고.

20) 정부와 시민단체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5월 9일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라는 보도를 이어갔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겼다. 김수린, 『포스트 코로나 사회』, 134. 존 파이퍼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실례로 든 두 가지 중 하나가 동성에 관한 성경

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성소수자를 낙인찍고 성적지향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퀴어 축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특정 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거침없이 표출되었다.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하면 누구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더욱 두려운 일이 된다. 이로 인해 클럽 방문자들이 감염 검사를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자,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잠적하라는 지침이 암암리에 퍼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며, 오히려 방역에 방해만 될 뿐이었다.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을 야기한 31번 확진자는 각종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31번 확진자는 지역 사회를 위협에 빠뜨린 '민폐 환자'이자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했다. 대구·경북 지역이 "신천지 늪은이 하나 때문에 초토화"되었으며, 징역을 보내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이 정도 이단은 없애 버려야" 한다면서 신천지 교회를 '병신천지'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하였다.²¹⁾

31번 확진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많이 거론된 자는 3번 확진자였는데, 3번 확진자는 6번과 28번을 감염시켰고 6번 확진자는 다른 세 명의 확진자를 감염시켰다. 3번 확진자가 우한에 다녀온 뒤 고열이 있었음에도 다른 이들을 만난 것에 대해 '민폐끝판왕'이라고 비난했고, 3번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 배려에 반대하는 견해를 제시되기도 했다. 이런 여론 속에서 3번 확진자와 31번 확진자에게는 '슈퍼전파자'라는 별칭이 붙었

구절이어서 논란이 많다. John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Weaton: Crossway, 2020), 71.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ی 동성애자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코로나19를 내리신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2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코로나19 테카메론』, 146.

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슈퍼전파자’는 과학적 의미와 함께 개인 욕심을 위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사람이라는 도덕적인 비난의 의미도 함께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슈퍼전파자’는 타인에게 민폐를 끼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이다.

또한 코로나19(COVID-19)와 Idiot(이디어트)의 합성어인 코비디어트(Covidiot)도 널리 회자되었다.²²⁾ 코비디어트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행동하는 멍청이를 의미하는데, 특히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혐오 대상을 보면 사회 구조의 주변에 위치한 아웃사이더들이 대부분이다. 조선족, 비주류 종교인(신천지), 노인, 젊은이, 성 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종족, 종교, 지역, 연령, 섹슈얼리티, 직업이라는 사회적 범주에서 주로 열악한 소수자에게 혐오가 집중된다. 제프리 알렉산더(Jeffrey Alexander)에 따르면, 가치는 성과 속이라는 이항 대립을 근본으로 하는 문화구조로 구체화된다. 혐오 대상을 문화구조의 차원에서 보면 국민 대 외국인, 정통 대 이단, 중앙 대 지방, 성인 대 노인/청년, 이성애자 대 동성애자,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항 대립이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³⁾ 사라 아메드(Sara Ahmed)는 감정을 단순히 심리적 성향에 머무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회규범에 투하한 일종의 자본으로 간주하였다. 사회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투하한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혐오는 정동적 경제(affective economy)를 순환하며 부정의를 생산한다.²⁴⁾ 배제되면 혐오 대상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악순환은 강화되고, 그럴수록 혐오가 더욱 기승을 부

22)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24073/view> (검색 2020년 9월 1일).

23) 기모란 외, 『멀티플 팬데믹』, 137.

24)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143.

리며 휩쓸게 된다.

2. 혐오를 동반한 폭력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갈 때, ‘황인종은 백인종에게 위협이 된다’는 황화론(yellow peril)과 맞물려 아시아계 시민을 평균 취급하는 혐오 또한 빠르게 퍼져나갔다. 길에서 아시아인이 보이면 갑자기 코와 입을 가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너희가 병을 옮기고 다닌다’며 모욕을 주는 행위, 소독제를 뿌리거나 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혹은 반대로 가까이 다가와 과장된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했다.²⁵⁾

혐오는 편견이 동기가 된 증오범죄 등과 같은 폭력 형태로 표출되었다. 1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국인 유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 3월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하루에 두 명의 한국계 남성이 피습을 당했다. 4월 6일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밤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아시아계 여성이 현관문 앞에서 염산 테러를 당했다. 또한 4월 15일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출신 유학생이 백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²⁶⁾

3. 혐오에서 인류애로

혐오감은 상한 음식물을 먹거나 병원균을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혐오는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로서 자기 안의 불안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를 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전파자라고 부르는 것은 역학 조사를 통해

25) 김수린, 『포스트 코로나 사회』, 189-190.

26) 위의 책, 190.

도출된 과학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다. 한 사람이나 집단이 감염된 이상, 그 사람이 그가 속한 집단을 경계하며 피하거나 심지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혐오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비난과 뒤섞일 때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²⁷⁾

누스바움은 두 가지 형태의 혐오를 구분하였다. 하나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이나 분비물, 체액, 시체 등과 같은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이다.²⁸⁾ 대소변, 피, 콧물 등에 대한 혐오는 우리의 동물성에 대한 거부 표현으로 모든 사회에서 작동하며, 이런 혐오에는 일종의 원시적인 두려움이 있다. 즉, ‘나는 동물과 다르다’라는 차별 의식을 가지고 동물적 본성을 혐오하는 것이다.²⁹⁾ 또 다른 하나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자연적 혐오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문화적으로 확장된 투사적 혐오(projective disgust)이다. 투사적 혐오는 부패, 냄새, 분비물 등과 같은 역겨운 특성을 사회의 특정 집단에 투사해 그들을 종속시킬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혐오는 대체로 약한 집단을 겨냥하면서 자신들의 혐오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문제시되한다.³⁰⁾

투사적 혐오는 망상을 먹고 자라며 예측을 만들어낸다. 혐오가 자신을 순수한 것으로, 타인을 더러운 것으로 표상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충족

27) 이종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대학과선교』 45(2020), 72.

28) 눈물은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분비물인데, 그 까닭은 눈물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마사 C. 누스바움,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서울: 뿌리와이파리, 2016), 54.

29)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 126.

30) 누스바움에 따르면, 투사적 혐오는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경우의 오류, 중요성을 오해하는 오류,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오류, 공정하다고 믿고 싶은 세상에 대한 무력감 등의 네 가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지성, “코로나19 시대,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19 참조.

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필요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지는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이러한 전략은 사회의 공정성을 해친다.³¹⁾ 누스바움은 혐오를 일종의 신뢰할 만한 경고로 보면서 혐오에 의존함으로써 끔찍한 행위를 피할 수 있는 카스의 입장도 비판한다.³²⁾ 카스는 혐오가 '일종의 신뢰할 만한 경고'로서 '모든 이성적 주장보다 깊은 차원에 있는 지혜를 내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혐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혐오가 보여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인간 존엄에 대한 끔찍한 폭력성이다.

혐오가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를 넘어 투사적 혐오로 발산될 때, 타인을 향한 폭력의 행태를 띄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혐오가 발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누스바움은 진지한 성찰이 편견과 혐오를 넘어 사랑과 연대로 나아가는 발판임을 강조한다.³³⁾ 즉 모두가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두려움이 줄면 혐오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IV. 공감과 환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혐오가 분출되는 반면 진지한 자기 성찰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환대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톰 라이트(Tom Wright)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 애통하고 자제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애통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저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³⁴⁾

31)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55.

32) 위의 책, 48.

33)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 120.

34) N. Tom Wright, *God and The Pandemic* (London: Zondervan, 2020), 10.

1. 공공재로서의 바이러스와 면역

톰 라이트(N. T. Wright)는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일종의 도피상태요, 금식 상황으로 해석했다. 비록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지의 순간이요,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때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밀한 삶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는, ‘알지 못하는(not-knowing)’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³⁵⁾ 존 레녹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경계한다. 바이러스는 미세하고 하찮게 보이지만 먹이사슬을 통한 영양소 재순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이러스는 생명에 필수적이고, 그 가운데 1% 정도만 병원성이 있어서 숙주에 해롭다는 것이다.³⁶⁾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투쟁해서 완전히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파올로 조르다노는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³⁷⁾

펜으로 선을 그어 인간들의 상호 교류를 표시한다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잉크 얼룩이 될 것이다.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경로가 매우 복잡하

35) 위의 책, 52.

36)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21가지 바이러스 유형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일억 가지 바이러스 유형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다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꼭 필요하다. 인간에게 유익한 바이러스는 놀라울 만큼 많다. 생산적인 호수나 강에는 일 밀리리터당 일 억개나 된다. 티스푼의 4분의 1 면적에 호수 인구를 집어넣는 것의 네 배도 넘는다. 존 레녹스, 홍병룡 옮김,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서울: 아바서원, 2020, 46-48.

37) 파올로 조르다노, 김희정 옮김,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서울: 은행나무, 2020), 43.

게 얽힌 연결 그래프 속에 산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이 경로를 타고 어디든지 달려간다. 따라서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존 던의 목상이 더욱 의미심장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은 ‘공공재(common goods)’라는 인식이다. 공중위생, 응급의료, 재난대응, 건강보험 등 모든 공공재가 그렇듯, 공유 기반이 약하면 약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그 책임은 개인에게로 분산되어 전가된다.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라 비스(Eula Biss)에 따르면, 면역은 공유된 공간이며, 함께 가꾸는 정원으로 보았다.³⁸⁾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단면역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면역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물려받고 함께 가꾸어야 하는 공공의 책임영역이기에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 방역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

2. 공감

42세에 유방암을, 64세에는 자궁암을 진단받았으며, 52세에는 폐암으로 어머니를 잃었고 얼마 후 친구를 에이즈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던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질병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³⁹⁾ 첫째, 질병을 묘사하는 데 ‘전쟁의 은유’로 주로 사용한다는 점과 둘째, 질병을 일종의 인과응보로 여기는 관념이 지닌 문제점이다. 암의 경우에 이런 관념이 기승을 부렸는데, 암에 관한 한 우리는 투쟁을 하거나 성전(聖戰)을 벌인다는 것이다. 암은 살인마 같

38) 올라 비스, 김명남 옮김, 『면역에 관하여』 (과주: 열린책들, 2016), 248.

39)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서울: 이후, 2002), 88.

은 질병이며,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암의 희생양이 된다. 표면적으로 암은 범죄자나 마찬가지이다. 암 환자 또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암에 걸리는 것이나 암을 극복하는 것이나 전부 불행한 환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또한 암을 질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마 같은 적으로 취급하는 관습 때문에, 암은 수치스러운 질병이 되어버린다. 한센병 또한 이와 비슷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한센병은 사회적 타락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텍스트, 타락의 사례이자 상징이었던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손택에 따르면, 어떤 질병에 특정한 의미나 이미지, 특히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가혹한 일은 없다. 마음 속 깊숙이 자리한 공포의 대상들(타락, 부패, 오염, 아노미, 쇠약함)이 그 질병과 동일시된다. 그 다음에는 이 질병의 이름으로 이런 공포들이 다른 것들에게 부과된다. 이제 질병은 형용사적 어구가 된다. 어떤 것을 어떤 질병 같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언더리 나는 것이며, 추악하다는 의미가 덧붙여지게 된다. ‘타격’이나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 ‘플라가(plaga)’를 어원으로 하는 역병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수많은 질병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었을 뿐 아니라 집단적 재앙, 악, 천벌을 나타내는 최고의 본보기로서 오랫동안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왔다.⁴⁰⁾

이처럼 질병은 사회가 타락했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고발하는 은유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질병은 정치 철학에서는 사회의 무질서를 지칭했으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기존의 정치적 상황이 빛은 처절함이나 심판되어야만 될 그 무엇, 즉 악의 징후를 지칭하는 은유로 사용되었다.⁴¹⁾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운동이 질병의 은유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연유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체주의 운동의

40) 위의 책, 176.

41) 위의 책, 266.

지도자들은 자신을 외과의사와 동일시했다. 사회의 무질서나 정치적 적수가 무찔러야 할 질병이라면, 자신들은 이 질병을 수술해서 제거해낼 의사라는 은유로 자신들의 무자비한 행위를 합리화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질병에 대한 전쟁이라는 은유는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에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려면 개인의 권리를 당연히 양도해야 하고, 무고한 피해를 입고 희생되는 소수가 있더라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묵인될 수 있고 당연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따라서 일단 전쟁의 은유가 자리 잡고 나면 개별적인 미담이나 성공적인 사례로 취급될 뿐 전쟁 중이라는 현실 인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바이러스 팬데믹과 연관시켜 볼 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의 은유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취약한 이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들을 그대로 노출시킨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보면 감금시설에 가까운 요양 병원과 정신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였다. 전쟁이라는 상황 인식은 방역이라는 중차대한 목표 외에는 다른 고려 없이 비난이나 혐오를 쉽게 쏟아놓게 만든다. 전쟁의 긴급함은 현시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나 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뒤로 밀쳐놓게 된다.

손택에 따르면, 질병은 삶을 따라다니는 그늘, 즉 삶이 건네준 성가신 선물이다. 사람들은 모두 건강의 왕국과 질병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법이며, 아무리 좋은 쪽의 여권만을 사용하고 싶더라도, 우리는 결국 차례대로, 다른 영역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⁴²⁾ 따라서 질병을 다루려면 질병을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사

42) 위의 책, 15.

고방식에 될 수 있는 한 물들어서는 안 되며, 그런 사고방식에 저항해야 한다.

공감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지녀야 할 미덕이다. 공감은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인지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다. 공감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서 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하여 행동지침으로 삼는 기술이다. 따라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 적절한 감정과 행동으로 대응하는 정서적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⁴³⁾

질병은 치료해야 할 그 무엇일 뿐이며, 환자는 고통받는 사람을 뜻할 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의무를 다해야 당연하지만, 그런 노력이 감염자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로 공감하면서 감염의 책임을 공유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방역의 구멍들을 찾아 메우는 데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덕에 이나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공감을 통해 돌봄과 연대가 든든함으로 면역을 강화하는 방식이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3.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의 안정적 관계를 뒤흔드는 감염병은 공동체의 연대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연대성이 약한 공동체는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나 이외의 타인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고통에 쉽게 눈감아 버리고

43) 이종원, 『희생양과 호모 사케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9), 267.

각자도생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불러일으켜 아노미 상태로 치닫게 된다. 반면 연대성이 강한 공동체는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유대감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상생을 도모한다. 폭넓게 적용되는 보편적 건강보험과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연대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본다.

그동안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계의 소중함과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깨닫는다.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성품은 위기를 극복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지젝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지지 마라(요 20:17)”고 한 말의 의미는 믿는 이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는 한 거기에 임재할 것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그리스도는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과 연대로 묶는 존재로 임재할 것이니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를 돌보라는 의미로 보았다.⁴⁴⁾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실체화하는 표적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특별히 재난의 현장에서 더욱 절실하게 드러나는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연대와 실천, 섬김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다.

모든 재난에는 고통이 뒤따른다. 재난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 충격이 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아픔 앞에서 상실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난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낮은 관계 속에서도 서로 친구가 되고 협력자가 된다.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즉석에서 새로운 역할을 도맡아 수행한다.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보살피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벽이 무너지고 깊은 유대로 하나가 된다. 아무리 가혹한 운명이라도 함께 아파하고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

44)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17.

레베카 솔닛에 따르면, 재난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재난이 발생한 순간 기존 질서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피소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 와중에 부당한 기존 질서는 붕괴되고 보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재난 유토피아와 같은 새로운 질서로 대체된다. 솔닛은 미스바를 그 예로 든다. 미스바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만나곤 했던 망루였는데, 미스바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희망을 기대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⁴⁵⁾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열쇠이다. 한국의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4T, 즉 진단(Test), 추적(Trace), 치료(Treat), 투명(Transparency)이 특징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신뢰(Trust)일 것이다. 신뢰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자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이며, 공동체의 구성원들 서로간의 신뢰이기도 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상호 신뢰는 거버넌스의 토대가 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수많은 구조대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재난 지역과 응급 처치소, 병원, 구호센터로 모이기 시작한다. 곧이어 구호 장비와 의료, 식품, 침구 같은 물품들이 재난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2월 25일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시의사회장이 요청했을 때, 전국의 의료진 약 3,000여 명이 대구로 향했다. 공중보건의 700명과 75명의 간호장교, 공공병원 의사와 간호사도 합류했다. 방역소독과 물품 제작·배부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4월 27일 기준 43만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⁴⁶⁾

45) 미스바란 히브리어로 (물리적으로나 죽음에 의해) 분리된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뜻한다. 레베카 솔닛, 정혜영 옮김, 『이 폐허를 응시하라』 (서울: 펜타그램, 2012), 32-33 참고.

이타주의는 자기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는 동시에 받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소통과 연대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돕는 행위를 통해 타인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으며, 자신이 커다란 공동체의 일부임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남을 돕는 행위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자신이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의미 있게 쓰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그런 점에서 재난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비범한 능력을 끌어내는 계기를 제공하며, 이타주의에 기초한 연대와 참여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새로운 희망을 펼치는 계기가 된다.

4. 현대의 공동체

팬데믹 상황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위기에 직면할수록 문제의 해법은 처음으로 돌아가 세상 속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⁴⁷⁾ 존 파이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은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선한 사역에로의 부르심으로 해석하였다.⁴⁸⁾

교회 공동체는 위기와 재난의 때에 환대를 통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섬김의 모델이 되었다. 초대 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시골 저택으로 몸을 피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으며, 사제들마저 신전을 버리고 도피하였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버려진 환자들을 사랑으

46)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원, 『코로나19 테카메론』, 231.

47) 경동현 외, 『팬데믹 시대의 가톨릭교회』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20), 29.

48) John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87.

로 돌보았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 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옳자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⁴⁹⁾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닥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생의 목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들은 천국의 실재를 제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을 보여줌으로써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당시 기독교인의 사망률은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낮았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로마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였다. 기독교인의 사망률이 비교적 낮았던 이유는 청결했음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종교적 특성 때문이었다.

역병으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중단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환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였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로마 시민들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도피했던 반면 기독교인들은 황금률을 적용하여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로드니 스타크는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있는 도시들의 사망률이 다른 도시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염병으로 인구가 줄고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해체될 때 기독교 공동체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 새로운 애착관계를 제공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전환을 꾀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⁰⁾

49) 로드니 스타크, 손현선 옮김,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 씨앗, 2016), 129.

존 레녹스 또한 기독교인들이 병자를 돌보는 가운데, 역병은 번덕스럽고 화난 신들의 작업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반역한 깨어진 창조 세계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영적 모델을 제공했음을 강조한다. 키프로스 역병 당시 크리스천들이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등 그들을 도맡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줄리안 황제는 ‘갈릴리인들(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병자들까지 돌본다고 비통하게 불평하였고, 교회 역사가 폰티아누스는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⁵¹⁾

1527년 페스트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덮쳤을 때, 마르틴 루터는 도망쳐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남아서 병자를 돌보았다. 그가 도피하지 않은 바람에, 그의 딸 엘리자베스가 죽은 불행 을 겪었다. 루터는 크리스천이 역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역병에 대한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반응에 대해 진술했다.

우리는 우리의 임지에서 죽는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관리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도망칠 수 없다. 목사들은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 없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해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십자가로 돌린다.⁵²⁾

재난 속에서 환대의 꽃이 활짝 핀다. 도로시 데이는 1932년 독실한 신사이자 급진주의자인 프랑스 농부 피터 모랭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1933년 노동절에 도로시 데이는 피터 모랭과 함께 평화주

50) 위의 책, 142-145.

51) 존 레녹스,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73-74.

52) 위의 책, 75.

의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사회개혁, 믿음의 행위로서 친절한 행동을 설교할 신문을 창간했다.⁵³⁾ 그리고 그들은 환대의 집을 열어 극빈자들과 집 잃은 사람들을 수용하였다. 1939년에는 스물 세 곳의 환대의 집과 두 곳의 농장, 전국 차원의 학습 모임이 운영되었다. 환대의 집은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핵심 노동자들이 그곳 거주자들과 다른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종의 공동생활체였는데, 그 가운데는 중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나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태반이었다. 환대의 집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봉사했다.⁵⁴⁾

로마 제국 치하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인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감염될 경우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교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말이 파라볼라노이(παρὰβολάνοι),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었다. 3세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이 호칭으로 불렸다는 것은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자기희생적 사랑과 적극적인 환대를 실천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이들은 직분을 떠나 순교자와 다를 바 없다고 설교했다.⁵⁵⁾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영적 민감성은 서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소외된 자, 소수자, 낮은 자에 속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맞서 신분, 종교, 재산,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감염자들을 헌신적으로

53) 이 신문의 초판은 2,500부로 인쇄되었으며, 가격은 1센트였다. 이후 신문의 발행부수는 급증하여 창간 2년 만에 11만 부에 달했고, 1939년에는 거의 20만 부에 달했다.

54) 레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107-109 참고.

55)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균포: 다함, 2020), 124.

보살폈다. 그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박하고 단순하게 황금률을 적용하여 사랑과 환대를 실천했다. 전염병이라는 총체적 위기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사랑과 환대가 기독교의 발흥과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 부산온천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욕도 많이 먹었다. 하지만 부산온천교회의 감염자 전원이 회복된 뒤 코로나 백신 연구를 위해 혈장을 모두 기부했고, 교회는 방역 센터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에 관심을 두는 공감 소비 운동을 대교회 중심으로 벌이고 있다.⁵⁶⁾ 또한 교회가 소상공인의 매점을 방문하여 상당액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그것을 가난한 이웃이나 외국에 보내는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만이 벌이는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에 응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한 반응이다. 자발적 나눔이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된다.

V. 나가는 말

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이 지녀야 할 덕성으로서 공감과 환대가 절실함을 역설하였다. 공감과 환대는 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관계를 순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미덕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조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동안 많은 것을 비추며 보여주었다. 바이러스가 비춘 우리의 일상은 무척 생경하고, 두렵고, 쓰라릴 정도로 아픈 단면

56) 임덕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교회』 (서울: CLC, 2020), 104.

을 비취주었고 공동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차별과 배제가 약자들을 더욱 힘겹게 하였고, 혐오를 동반한 폭력이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바이러스의 비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말, 그리고 태도와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염병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이제 차별과 혐오 대신에 연대와 환대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간주하며 배척하고 차별하는 태도와 따뜻하게 공감하며 환대하는 태도 사이에는 극명한 감정적 온도 차이가 있다. 그들의 탓이라는 쉬운 분노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져야 할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지속될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서로 간의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이나 방관자적 태도는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새로운 감염 바이러스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마르틴 니뮐러 목사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진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⁵⁷⁾

57) N. Tom Wright, *God and The Pandemic*, 13.

존 레논이 부른 〈이미진〉에는 증오와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 노숙자에게 집을 제공하고 굶주리는 이에게 음식을 주는 세상, 인종, 종교, 돈에 상관없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하는 꿈과 이상을 노래하고 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라고 했는데⁵⁸⁾,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마주치는 비극의 순간들을 상상력과 행복 가득한 희극으로 바꾸는 마술 같은 기적의 힘은 공감과 환대가 아닐까 싶다.

58)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157.

참고문헌

- 경동현 외. 『팬데믹 시대의 가톨릭교회』.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20.
- 고환상 외. 『뉴노멀로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세상』. 서울: 지식플랫폼, 2020.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코로나19 테카메론』.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0.
- 기모란 외. 『멀티플 팬데믹』. 서울: 이매진, 2020.
- 김명자. 『팬데믹과 문명』. 서울: 까치, 2020.
- 김수린 외. 『포스트 코로나 사회』. 광주: 글향아리, 2020.
- 김은실 외. 『코로나시대의 페미니즘』. 서울: 휴머니스트, 2020.
-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광주: 창비, 2019.
- 뉴스바움, 마사 C.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서울: 뿌리와이파리, 2016.
- 레녹스, 존. 홍병룡 옮김. 『코로나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을까?』. 서울: 아바서원, 2020.
- 비스, 올라. 김명남 옮김. 『면역에 관하여』. 광주: 열린책들, 2016.
- 생커, 제이슨. 박석현 옮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고양: 미디어숲, 2020.
- 손택, 수전.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서울: 이후, 2002.
- 솔닛, 레베카. 정혜영 옮김. 『이 폐허를 응시하라』. 서울: 펜타그램, 2012.
- 스타크, 로드니. 손현선 옮김.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 씨앗, 2016.
- 안명준 외.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군포: 다함, 2020.
-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 서울: 메디치, 2020.
-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이지성. “코로나19 시대, N포 세대의 두려움과 혐오에 대한 윤리적 과제.” 『기독교 사회윤리』 48(2020).
- 이종원. 『희생양과 호모 사케르』.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19.
- 이종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책.” 『대학과선교』 45(2020).
- 임승규 외.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서울: 한빛비즈, 2020.
- 임덕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교회』. 서울: CLC, 2020.
- 장보철. 『코로나19 치유 핸드북』. 서울: CLC, 2020.

- 조르다노, 파올로. 김희정 옮김.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서울: 은행나무, 2020.
지젝, 슬라보예. 강우성 옮김, 『팬데믹 패닉』. 서울: 북하우스, 2020.
최윤식.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서울: 김영사, 2020.
최현식.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Piper, John. *Coronavirus And Christ*. Weaton: Crossway, 2020.
Wright, N. Tom. *God and The Pandemic*. London: Zondervan, 2020.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24073/view> (검색 2020년 9월 1일)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6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21일

 • 국 문 초 록 •

본 소고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발생한 차별과 배제, 혐오 등으로 퍼져나가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정신을 갖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안에 내재된 편견과 혐오를 거침없이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바이러스로 인한 원한과 분노, 적개심을 특정 집단으로 돌리려는 강력한 사회심리적 충동을 경험하였다. 중국인 공포증인 ‘시노포비아’는 극에 달했으며, 부머 리무버, 신천지 교회를 ‘병신천지’라고 부르며 조롱하였고, 수퍼전파자가 된 사람을 ‘민폐끝판왕’이라고 비난하고 코로나명칭이라는 뜻의 ‘코비디어트’도 널리 회자되었다. 이러한 혐오 바이러스는 차별받는 이들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 요지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을 어떻게 우리 모두의 문제, 즉 공동의 기반이자 공적인 문제로 돌려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연민과 보살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면역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물려받고 함께 가꿔야 하는 공공의 책임영역이기에 시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 방역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 공감과 환대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미덕이다. 공감과 환대는 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관계를 순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미덕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조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위기와 재난의 때에 환대를 통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섬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주제어: 코로나19, 공감, 환대, 차별, 배제, 혐오, 폭력.
